

보도자료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/즉시		
배포일	2021. 4. 22.(목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880-9072, 5054)
담당기관	연구처 연구정책과	문의	최혜성 (880-5196)

대학 정상화를 위한 '신속 코로나19 분자 진단검사' 시범 실시

- 서울대학교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2021년 4월 26일(월)부터 '신속 코로나19 분자 진단검사' 를 시범 실시한다.
 - 서울대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한 전세계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출구전략으로서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어 대학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진단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.
 - 현장 실험·실습이 필수적인 자연과학대학 대학원생 등 실험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, 4월 22(목)~23일(금) 시운영 기간을 거쳐 4월 26일(월)부터 본격 실시하고 이후 시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.
 - 동일 집단을 “주기적” 으로 진단하여 감염자를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나머지 구성원은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본 검사의 목적이 있다.
- '신속 코로나19 분자 진단검사' 란 외부 진단시설로 검체를 이동하지 않고 검체 채취부터 분자 진단까지의 과정을 현장에서 처리하여 2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.
 - 이번 진단검사는 등온핵산증폭법(LAMP)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시약을 사용하게 되며,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95 이상인 정확성을 보인다.

- 신속 항원검사는 충분히 많은 항원(단백질)이 나오지 않으면 검출이 어려운 반면, 신속 분자진단 검사는 소량의 바이러스만 존재해도 핵산 증폭 방법을 통해 진단할 수 있으므로 무증상 감염자와 잠복기 감염자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
- 다만, 이번 검사는 법령에 근거한 병원체의 확인이 아니며,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학에서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자체 검사이므로 이 검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 확진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인 검사를 받게 된다.
- 서울대학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신속 코로나19 분자 진단검사를 통해 대학의 교육·연구 기능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- 이를 위해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검사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대면 활동을 갈망하고 있는 학내 구성원까지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- 서울대학교의 이러한 시도가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전국의 다른 대학은 물론 초중고 학교까지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